

제 1회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갑, 을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이상적인 나라는 국토가 작고 백성의 수도 적다. 문명의 이기가 있어도 쓰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삶을 아끼고 멀리 떠돌게 하지 않는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고 다닐 필요가 없고, 무기가 있어도 쓸 필요가 없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문자를 버리고 새끼줄로 묶어 뜻 표시로 쓰게 한다.
 을 : 큰 도(道)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으며,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노인은 자기의 생을 편히 마치며, 젊은이들은 모두 일할 수 있고 노약자·병자·불쌍한 자들이 부양되며, 길에 재물이 떨어져도 줍지 않는 세상이 바로 대동 사회이다.

- <보 기>
- ㄱ. 갑은 예(禮)를 통한 자연적 본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 ㄴ. 을은 외면적 도덕성인 인(仁)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 ㄷ. 을은 통치자가 군자다운 인격을 닦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 ㄹ. 갑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을은 덕치(德治)를 지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 즉 쾌락과 고통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 두 요소이다.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오직 이들의 지배에 달려 있다.
 을 : 이 세계 안에서, 아니 그 밖에서조차도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으로서 선의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듯 보인다.

◎ 학생 답안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고, ㉡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하면서, 이때 ㉣ 도덕 법칙은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같은 목적론적 윤리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며, 을은 의무론적 윤리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가)의 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제선왕 :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갑 : 인(仁)을 짓밟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짓밟는 자를 잔(殘)이라 합니다. 잔적(殘賊)한 자는 일개 사내에 불과합니다. 주(周)의 무왕이 일개 사내[一夫]일 뿐인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

- <보 기>
- ㄱ. A : 성(性) 자체는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인가?
 - ㄴ. A : 선(善)의 실현을 위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 ㄷ. B : 인간에게 식색(食色)의 욕구가 있는가?
 - ㄹ. B :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인정하고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 (가)는 인터넷에서 A를 검색한 것이다.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 불교 윤리에서 A는 ㉠ 이다.

- ① 세상이 공허하다는 허무주의 사상
- ② 바라밀을 실천하는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 ③ 아집에서 벗어나 무아(無我)를 인식하는 것
- ④ 한쪽으로부터 치우치는 양극단을 떠난 중간의 도(道)
- ⑤ 만물과 구분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를 깨달은 상태

5.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30년, 영국 정부는 '소금 법'으로 인도 사람들을 더욱 억압하였다. 소금 세가 너무 높아 가난한 농민은 소금을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자 간디는 영국 정부에게 '소금 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간디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소금 법'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24일 동안의 평화적 행진을 시작하게 된다. 간디 일행은 3주에 걸친 행진 끝에 동쪽 해안에 이르렀으며, 일행은 손으로 바닷물을 떠다가 햇볕에 말려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행진이 끝날 때쯤 약 6만여 명의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간디 역시 체포되었다.

- 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 ②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④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이다.
- ⑤ 인과 법칙에 따라 결정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孝]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서 충성[忠]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으며, 벗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도 벗과 백성에게서 믿음[信]과 어짊[仁]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다. 모두 이 마음에 있을 뿐이다. 이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천리(天理)이니,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 이 순수한 천리의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바로 효도이고, 임금을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바로 충성이며, 벗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드러낸 것이 바로 믿음과 어짊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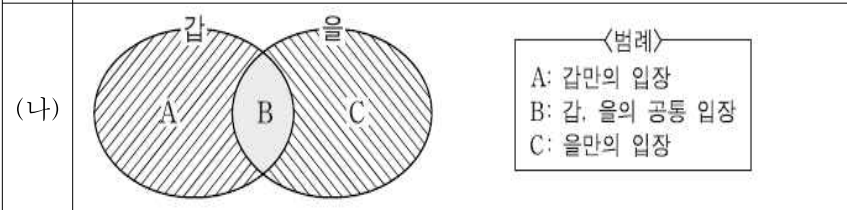
<보 기>

- ㄱ. 마음이라는 입법에 의해 이치가 세워지는가?
- ㄴ. 지(知)와 행(行)은 별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인가?
- ㄷ. 치지(致知)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선결 조건인가?
- ㄹ. 참된 앎을 얻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자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 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근원이자 목표이다. 참된 쾌락과 참된 행복은 영혼의 고요한 평정에 있다. 두려움, 욕망, 고통 등과 같은 영혼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때 바람 한 점 없는 잠잠함과 바다와 같은 고요함이 나타난다.
 을: 전 대지와 온 하늘이 신의 존재이다. 신은 구정물 속에도, 회충 속에도, 범죄자 속에도 있다. 자연은 이렇게 살아 있는 전체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성을 갖춘 생명체이다. 이성이 자연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있기에 자연 자체가 이성적이고 영혼적이며 이해 가능한 것이다. 즉, 자연은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이다.



- ① A: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이 중요하다.
- ② A: 감각적 쾌락의 추구는 지속적인 쾌락을 가져다준다.
- ③ B: 쾌락은 선이고 모든 행위의 진정한 목적이다.
- ④ C: 각 개인에게 주어진 운명은 극복의 대상이다.
- ⑤ C: 이성은 인간의 본성인 동시에 신과 세계의 본성이다.

8. 갑과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의의 원칙이 계약의 산물임을 부정하고 있다.
- ② 정의보다 배려가 도덕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인간이 지닌 이성적 판단 능력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 ④ 보편적 원리 못지않게 배려나 공감의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보편화 가능한 도덕 원리의 정립임을 모르고 있다.

9.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대개 도(道)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하여 말하자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라는 두 문에 불과하다. 비록 "돈오돈수(頓悟頓修)는 최상의 근기(根機)*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 그 과거를 미루어 보면 이미 수많은 생을 살면서 깨달음에 의지해 닦으면서 차츰차츰 변화해 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진리를 듣자마자 즉시 깨달아 한꺼번에 모든 일을 마친 것이다. 진실을 말해 본다면 이것 또한 먼저 깨달고 뒤에 닦은 근기이다.

*근기: 교법을 받을 수 있는 중생의 능력

- ① 선정[定]보다 지혜[慧]를 우선시하였다.
- ②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 ③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곧 부처라고 하였다.
- ④ 경전을 통해서만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단박에 깨달으면 완전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10. 갑과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시할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음(陰)이 멈추고 양(陽)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저절로 그러한 것이요, 시킨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양이 움직이는 것은 이가 기의 움직임을 탄 것이지 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음이 멈춘 것은 이가 기의 멈춤을 탄 것이지 이가 멈춘 것은 아니다.
 을 : 사단(四端)의 정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지만, 칠정(七情)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니 불선(不善)은 없으나 기가 발한 것이 나중에 이를 멀하게 하면 방탕하여 악이 되는 것이다.

<보 기>

- ㄱ. 이와 기는 모두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 ㄴ.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 ㄷ. 이를 교정함으로써 기질을 바로잡을 수 있다.
- ㄹ.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의 사상적 입장에서 볼 때, (나) 그림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는 실상도 있고 증표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힘을 들여서 함이 없고 나타남이 없다. 따라서 전할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고, 얻을 수는 있지만 보여질 수는 없다.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고, 스스로를 뿌리로 한다. 그것은 천지가 있기 이전부터 본래 있었다. 귀신과 상제를 신령스럽게 하며 하늘을 만들고 땅을 내었다.
(나)	

- ① 감각적 경험을 통해 참다운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 ②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 ③ 분별적 지혜를 끊고 도(道)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④ 사심(私心)을 버리고 예법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⑤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인의(仁義)의 덕을 구현해야 합니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 해당하는 것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인간은 의지 자체이고 욕망의 육체화이며 그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의 생활에는 다급한 욕구를 짊어지고 새로이 나타나는 생존의 번뇌만이 가득 차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살려는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철저한 금욕을 통해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	√		√	√
욕망의 극복을 위해 합리성을 함양해야 한다.	√		√	√	
이성과 과학으로는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		√	√
관념론의 입장에서 생(生)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가), (나)의 사상적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가) 사람이 오거든 한울님이 온다 하라.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시비하지 말라. 이는 한울님과 시비하는 것이다.
 (나) 세상의 모든 재앙은 선천(先天) 시대에 쌓여온 원한 때문이므로, 후천(後天)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한들이 깨끗이 해소되어야만 한다.

<보 기>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는가?	
		예	아니요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인가?	예	A	B
	아니요	C	D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A | C | ② A | D |
| ③ B | D | ④ C | B |
| ⑤ C | D | | |

14.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

(가) 공공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은 공공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라곤 전혀 없었던 두 계급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 대토지 소유자들은 그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동하였고, 상인 및 수공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다. 전자의 어리석은 행동과 후자의 근면함이 불러일으킨 위대한 혁명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도 미처 알거나 예상하지 못했다.
 (나) 생산 수준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유효 수요이다. 유효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불안정한 투자 활동이 경기 변동의 결정적 원인이다. 시장은 완전 고용을 이루는 균형을 달성하지 못한다. 시장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질 문	대답	
		(가)	(나)
①	분배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아니요	예
②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를 시정해야 하는가?	아니요	예
③	재정 지출의 확대는 불황의 극복에 도움을 주는가?	예	아니요
④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하는가?	예	아니요
⑤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가?	예	예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두 개의 사랑에 의해서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된다.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함으로써,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 전자는 자신을 경배하며 후자는 신을 경배한다.

(가) 을: 이 세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확실하며 감각으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 (중략) ... 우리는 다른 것한테도 움직여지지 않는 최초의 운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이는 이런 존재를 신으로 이해한다.

(나)

- ① A :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 ② A : 종교적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 신의 계시를 중시하는가?
- ③ B : 신은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가?
- ④ C : 신앙과 이성은 조화될 수 있는가?
- ⑤ C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의 영향을 받았는가?

